

# 혹서기 양돈장 피해 대책 완료에 중점



이재춘 원장  
한국양돈컨설팅그룹 한별 클리닉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6월에는 한 여름철의 무더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하절기에 문제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예측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점검하여 혹서기 대책을 완료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도록 한다.

## 1.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생산 부분에서의 문제점

여름철에는 양돈 생산성이 연중 가장 떨어지는 시기로 인식되어져 있고 실제 성적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여름철 성적 저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는데 과거야 어쨌든 금년 여름철부터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양돈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자세를 가다듬어 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모든 사료섭취량 저하(특히 포유모돈의 경우가 문제됨)
- 재귀발정 불량(후모돈 초

발정 지연 포함)

- 수태율저하
- 분만사 성적 저하(모돈체력 저하로 인한 난산, 무유증, 식욕부진 등에 의해 포유자돈의 상태악화)

- 육성 비육돈 사료 섭취량 저하
- 출하일령 지연 및 돈사 회전율 저하
- 더위로 인한 농장 방역의 허점

이러한 문제점들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압축 할 수 있다.

- 더위 스트레스의 최소화
- 사료 섭취량을 유지
- 소홀하기 쉬운 방역, 위생 관리를 강화

## 2. 더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현장 점검

- 1) 방목장에 수욕장을 마련하고 주변에 차광망을 설치하여 일사병을 방지한다.

2) 모돈의 목부근을 향하게 하여 점적시설 및 송풍기 덕트를 설치하고 웅돈방에도 스프링 콜러를 설치

3) 전 돈사에 송풍기를 설치한다.

4) 가정용 선풍기를(이동식) 준비한다. → 교배시, 또는 분만시 심하게 헐떡이는 모돈에게 틀어주기 위함.

5) 스톨사, 분만사에 직사광선 유입방지용 차광망 설치

6) 분만사에 물 호스를 준비한다. → 식욕부진 모돈이나 분만전후 모돈에게 수시로 강제급수해 주기 위함.

7) 분만사 입식 모돈의 체표 세척 및 약욕 시설을 갖춘다.

8) 돈사 천정 단열재 보강 (상황에 따라 돈사 지붕에 물 살포)

9) 돈사내에 온, 습도계 비치하여 환경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 3. 사료섭취량을 늘려 주기 위한 관리사항 점검

1) 물탱크를 돈사마다 설치하여 충분한 급수량 및 예비량을 확보한다. 또한 충분한 수압을 유지 시켜야 한다.

2) 육성사 습식급여 돈방에 별도의 넛플을 설치한다. 보통 비육돈 10두에 급수기 1의 비율로 설치한다. (15두 수용 돈방에는 급수기 2개설치)

3) 포유자돈 전용넛플, 또는 별도의 음수공급 시설 설치

4) 포유모돈 급이기 내에 급수기 설치

5) 피드빈 단열 (7일 이상 간격으로 사료 신청하는 경우)

6) 포유모돈 사료급여 횟수를 조정한다. 일 2회에서 일 3~4회급여로 전환

(식욕부진 모돈은 급여횟수를 증가하고 사료를 신선한 물과 함께 연사한다. 가급적 시원한 시간대에 사료를

급여한다. 또한 체온측정을 하여 39.5℃를 넘지 않도록 해열제, 항생제, 진정제 및 수액처치 등의 방법을 강구한다.)

7) 모돈에 비타민제, 미네랄 제제의 추가 공급계획(청초급여)

8) 임신말기 모돈의 체형점검. 특히 과비를 방지하며, 음부 및 유방이 부을 경우는 즉시 사료를 감량한다.

9) 분만예정일 최소 7일 이전 새벽에 분만사로 이동

10) 분만시간 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분만 유도제, 옥시토신)

11) 초산돈, 과비돈은 분만직후 해열제와 항생제 주사

12) 분만사 내의 초산돈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식별 표시를 하고 특별관리 실시

13) 밀사를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한다.

14) 매일 급수기 또는 넛플 점검, 주 1회 이상 사료 급이조 및 주변 청소 (1일 1회 육성,



비육돈의 사료통 비우기)

### 3. 위생, 방역 부분에 대한 점검

1) 일본뇌염 1, 2차 접종 (웅돈, 후보돈 포함, 후보돈은 지역별로 9~10월 까지 접종)

2) 돈콜레라, 돈단독, 파보백신 철저

4) 임신돈의 백신 접종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한다.

5) 자돈에 호흡기 백신의 접종을 지속적으로 철저히하여 가을철 환절기 및 겨울철 호흡기질병의 발생율을 줄인다.

6) 온도, 습도의 증가로 인한 세균증식을 억제(예 : 대장균증) - 청결유지, 소독

7) 주기적으로 음수소독을 실시

8) 방목, 청초급여로 인한 기생충 감염 기회가 증가하므로 내외부 구충을 철저히 한다.

9) 분만사 입식모돈, 외부구입돈 약육 실시

10) 상비약품 : 강심제, 해열제, 진정제, 유도분만제, 링겔수액등

11) 일사병, 열사병 예방 철저

- 시원한 시간대에 돼지 이동 및 교배

- 직사광선 차단, 온습도 조절 등의 환경관리

### 4. 기타

1) 현황판 활용 강화

- 모돈 : 이유후 교배 지연돈, 임신돈 사고 후 미교배돈 등의 비생산일수 경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록이 유지 되어야 한다.

- 웅돈 : 웅돈의 교배 횟수 및 교배 간격을 조절 할 수 있다. 의외로 많은 농장에서 활용율이 저조하다.

- 후보돈 : 초발정 유도 및 초교배 예정일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기록한다. 이렇

게 관리를 하므로써 초교배일령이 늦는 개체를 선별하여 별도로 관리해 줄 수가 있다.

- 비육돈 : 일령별 증체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2) 발정 유도 및 교배적기 파악을 위한 웅돈의 확보가 필요, 적정 웅돈 보유비율은 후보웅돈 포함하여 자연교배시 12 : 1, 인공수정시 30 : 1 정도로 한다.

3) 웅돈관리 : 정액검사, 웅돈방 수세 소독, 포피세척, 계란과 영양제 급여, 노령웅돈 도태, 웅돈의 정예화 (10~28개월령으로)

4) 교배관리

- 교배는 가급적 시원한 시간대에 맞추어 실시

- 교배시 자궁농 예방 철저 ( 교배전 모든 외음부 세척, 웅돈 포피 세척, 1회용 비닐장갑 착용)

- 교배완료한 모돈은 즉시 시원한 곳에 격리 (스톨로 이동후 물을 뿌려 준다)

- 교배후 4주간 임신돈 특별관리 (7월 ~ 9월 사이에 사료 2.5 ~ 3.0kg/일 급여)

5) 이유모돈은 스톨로 이동, 이유시 비칸톨 주사, 이유후 영양제 급여

6) 이유후 발정지연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 지연돈 발생을 최소화

7) 더위로 인해 불시에 저하될지도 모르는 정액질의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수정을 적극 활용한다.

8) 돈사주변 잡초제거 (복사열 차단, 해충 서식처 최소화)

9) 문제 모돈의 조기 색출 및 도태 (임신진단 및 전산관리의 적극적인 활용)

10) 생산목표 작성후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작업의욕을 고취한다.

11) 농장내 배수로 점검 (폭우 대비) **양돈**